

프란치스코 교황 오늘 방한... 124위 시복식 등 미사 집전

헬로! 파파

천주교광주대교구 신자·사제
1만420명 시복식 등 참가

‘일어나 비추어라.’(이사야 60, 1)
‘가난한 자의 빛’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관련기사 3면>
교황의 한국 방문은 1984년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국무총 장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등 고위 성직자 30명 등 대규모 순방단이 함께한다.
이번 방한은 천주교 사목방문으로, 정부는 국민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직접 공항에 나가 교황을 영접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25년 만에 한국을 찾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동안 아시아 가톨릭청년대회와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식 등 4차례 미사를 집전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용산참사 피해자, 밀양·강정 마을 주민 등을 미사를 통해 만난다. 또 앞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참석, 강릉 한빛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성직자와 신자 등 모두 8500여 명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복식에 참석하고, 1800여 명이 대전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참여한다. 시복식 행사에는 소록도 주민 8명도 함께할 예정이다.

숫자로 보는 교황 방한

행사 참석하는 주교 ... 100명

천주교광주대교구 참가자
· 시복식 8500명
· 성모승천대축일미사 1800명
· 아시아 청년대회 120명

공식 취재 기자 ... 2800명

124위 시복식
천주교 자원봉사자 ... 5000명

시복식에서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제병 ... 18만개

시복식 참석인원 ... 최대 100만명

프란치스코 교황 트위터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한국과 아시아 전역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지난 10일 개막한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광주대교구대회도 광주에서 펼쳐졌다. 필리핀, 싱가포르, 동티모르 등에서 참석한 청년 참가자 77명과 광주지역 참가자 등 120여 명은 지난 12일 원효사를 방문한데 이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와신상담’ ‘좌불안석’ ... 총선 20개월 앞둔 광주 정치권 벌써 ‘꿈틀’

강운태·이용섭·전정배 새롭게 ‘동지’ 들고 바닥민심 훑기
이정현 “호남 의원 권한세상 끝났다” 발언... 현역들 긴장

2016년 4월 총선이 20개월여가 남은 가운데 광주지역 정치권이 벌써부터 ‘꿈틀’ 대고 있다.

지난 6·4 광주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사실상 ‘공천 배제’된 전정배 전 법무부장관까지 광주에 새롭게 ‘동지’를 들면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7·30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여권 후보로는 처음으로 당선되는 등 지역민심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역 정치권이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최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자신의 지지단체인 청산봉사회와 외곽조직인 창조포럼을 통합한 사무실을 얻은 뒤 정치적 재기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구 봉선동에 아파트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남구는 강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다.

강 전 시장은 측근들과 자주 회동을 하며 주말과 휴일엔 지역 교회 등을 방문하고, 평일에는 동네 목욕탕 등을 돌며 바닥민심을 훑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강 전 시장이 2016년 총선에 남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 전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조심스럽게 남구 출마를 점치고 있다.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난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한반도미래연구원’을 창립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지지자들과 등산을 하며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등 지역민과의 접촉을 늘려가며 지역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 등을 이어가고 있다.

주변에선 이 전 의원이 4년 뒤 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는 반면, 지역 정치권 또는 중앙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2016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정배 전 장관은 7·30 재보선에 출마하려 했던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 장덕동으로 최근 이파를 구입해 이사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당분간 변호사 업무에 치중하면서 지역 현안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포럼 설립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7·30 재보선 이후 광주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장관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으로 중량감 있는 인물인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이어 패배를 하고 지역 정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 호의적이지 않은 만큼 이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오는 20대 총선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일 광복절... 함평 상해임시정부청사에 태극기

고향에 상해임시정부청사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세웠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함평군 신광면에 조성된 상해임시정부청사를 찾은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함평군은 함평 신광면 출신의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1886~1934)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 그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 ‘가닥’

TF 위원 대부분 “조기 건설” 의견...방식은 추가 논의키로

민선 6기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이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범위 내에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3일 오후 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재정·교통수요·기술분야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기술자문 TF 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저심도 방식으로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외에도 고가방식인 경량전철, 노면전차(트램), BRT(간선급행버스 체계) 등에 대한 장단점을 담은 자료 검토와 함께 기술위원들의

의견 발표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술위원 대부분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건설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건설방식을 결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 기술위원은 현 저심도 건설방식에

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제2차 기술자문 TF 회의를 열어 수송 수요 예측, 재무적 타당성 분석, 건설방식 및 사업비 절감방안, 시민 의견 수렴 방식 등을 주제로 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첫 TF회의에서 각 기술위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대부분의 위원은 도시철도 2호선의 빠른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신대학교 062)605-0956

송원고, 입학 성적제한 폐지
송원고는 자기주도전형 고수 ▶6면
광주 사직포크음악제 열린다
23일 양희은 등 12개 팀 참가 ▶17면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선 위로 종주국의 개와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는 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된 된 모퉁이 서점 주인이다.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도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